

##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 비교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은 기 수\*

이 연구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가 어떠한지 비교분석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를 구별로 분류하여 구별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규모를 밝힌 후, 서울의 각 구에서 주간에 유입, 유출되는 인구의 규모 및 유입, 유출지를 밝히고 있다. 그 다음 서울의 각 구별로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를 분석하여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간인구의 유입이 크다. 특히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와 성남, 안양, 의정부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주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들의 계층구조는 어떠한지도 이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 연구결과 서울의 도심부 상주인구는 계층구조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 놓여 있지만 주간인구의 계층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간에 수도권에서 서울의 도심부 및 부심부로 유입되어 하루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간인구의 계층구조는 서울의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계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상주인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구, 계층연구뿐만 아니라 주간인구를 대상으로 한 학문연구 및 정책적 고려의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단어: 상주인구, 주간인구, 계층, 도심부, 서울, 수도권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I. 서론

이 글의 관심은 인구와 계층이라는 두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인구학이라는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중요시되는 인구개념은 '상주인구'이다. 즉, 개개인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 '상주주의(de jure)'이고 상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파악하는 인구개념이 '상주인구'이다(권태환·김두섭, 1990: 18).

학문적으로나 행정에 주로 상주인구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주인구는 야간인구의 성격이 강하다. 즉 밤에 집에서 잠자는 인구로 이해하는 편이 빠르다. 현대사회에서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상주인구는 밤에 잠만 자는 인구이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 등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아닌 일터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행정적으로도 사람들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행정기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도 상주인구가 유발하거나 상주인구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보다도 오전, 오후 때로는 밤까지 일터나 학교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유발하거나 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한 사회의 계급·계층구조를 보고자 할 때 야간인구의 성격이 강한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계급·계층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거주를 하건 안하건간에 한 지역에 머무는 시간도 길고 일 또는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인구를 대상으로 계급·계층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더 나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폐쇄적이라고 가정할 수 없는 어느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계급·계층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을 연구대상으로 삼더라도 서울 내에서 계급·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싶을 경우에 야간에 잠만 자는 상주인구를 하위지역의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주간에 일이나 공부 등 여러 이유로 거주지 외에 장소를 바꿔 활동할 수도 있는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 나을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또 하나의 관심은 서울의 계급·계층구조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한국사회

에서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일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한 여러 여건 때문에 서울 밖으로 밀려나가 거주해야 하고, 일은 서울에서 해야 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거주민의 계층구조를 분석하고 싶다면 서울에만 살고 있는 혹은 주간에 활동하고 있는 인구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지만 주간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를 고려해야만 서울을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급·계층구조의 변화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지난 1990년 센서스부터 '주간인구'라는 개념으로 통근·통학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서 주간인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은기수, 2000a).

$$\begin{aligned} \text{주간인구} &= \text{상주인구} + \text{주간유입인구} - \text{주간유출인구} \\ &= \text{비통근·통학자수} + \text{지역내 통근·통학자수} \\ &\quad + \text{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학자수} \end{aligned}$$

이 정의에 따르면 주간인구는 어떤 지역의 상주인구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통근이나 통학하지 않는 사람들과 주간에 그 지역으로 통근이나 통학의 목적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합이다. 즉, 그 지역에 거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주간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주간인구인 것이다.

거주지와 일터의 불일치가 심화된 상황에서 '주간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인구 개념이 될 수 있다. 지난 10 여년 사이에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신도시가 건설되어 주거지역이 확대되었지만, 그들 지역은 자급자족의 기능을 갖는 도시라기보다는 베드타운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진 공간이 되어 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밤에 잠만 이 지역에서 잘 뿐 하루의 대부분은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보내게 된다. 이들은 어떤 계층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하루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이 글은 기존의 연구방식대로 '상주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간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서울의 거주지별 계급·계층구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주인구 대신 주간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을까? 먼저 서울의 구별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규모를 살펴보고 서울 및 수도권의 주간인구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 주간인구의 계급·계층구조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 Ⅱ. 자료와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서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를 분석한다. 1990년에도 주간인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단 1995년의 자료만 분석하기로 한다.

계급·계층구조의 분석을 위해서는 일관된 계급·계층구조 분석틀을 이용해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홍두승 교수의 분석틀을 채택해 분석한다(홍두승·김병관·조동기, 1999: 부표 3, 부표 4 참조).

이 연구의 분석은 구별, 계급별 분포의 변화를 빈도분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는 분석적인 연구가 아니고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개념을 사용할 때 계급·계층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기술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 Ⅲ. 서울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 1. 구별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규모

다음 <표 1>은 서울의 1995년 구별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상주인구의 규모로 보면 1995년 현재 서울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518,816명), 관악구(456,791명), 강남구(453,480명), 노원구(452,839명) 등의 순이다. 반면에 인구가 가장 적은 구는 중구(114,659명), 종로구(161,996명), 용산구(213,760명), 금천구(230,985명)의 순이다. 소위 옛도심 혹은 그에 가까운 지역은 인구가 매우 적은 반면, 강남지역이나 새로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지역의 인구는 많다.

그러나 주간에 이동하는 인구의 규모는 상주인구의 크기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를 보면 강남구(415,502명), 중구(366,059명), 영등포(284,683명), 종로(275,326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중구나 종로구의 경우 상주

〈표 1〉 서울의 구별 상주인구 및 주간인구, 1995

구	상주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주간-상주
중구	114,659	366,059	27,968	452,750	338,091
강남	453,480	415,502	142,876	726,106	272,626
종로	161,996	275,326	42,402	394,920	232,924
영등포	341,785	284,683	112,136	514,332	172,547
동대문	348,250	199,831	110,430	437,651	89,401
서초	327,197	202,106	119,666	409,637	82,440
용산	213,760	143,712	69,857	287,615	73,855
성동	275,280	140,640	99,004	316,916	41,636
서대문	299,059	140,761	105,630	334,190	35,131
구로	297,368	139,667	107,052	329,983	32,615
마포	323,876	118,815	111,325	331,366	7,490
성북	410,887	123,271	140,668	393,490	-17,397
강서	402,604	94,811	135,346	362,069	-40,535
금천	230,985	39,449	85,243	185,191	-45,794
도봉	283,114	62,802	112,201	233,715	-49,399
송파	518,816	125,635	177,591	466,860	-51,956
강동	394,524	65,741	128,072	332,193	-62,331
광진	312,114	48,908	111,950	249,072	-63,042
동작	350,555	80,916	147,551	283,920	-66,635
중랑	354,765	49,549	127,847	276,467	-78,298
은평	398,086	52,373	137,932	312,527	-85,559
관악	456,791	82,976	169,025	370,742	-86,049
양천	373,959	53,134	141,693	285,400	-88,559
노원	452,849	80,026	169,153	363,722	-89,127
강북	324,293	29,739	131,526	222,506	-101,787

자료: 통계청(1997: 91)에서 작성.

인구의 규모가 가장 작은 구인데 유입인구는 가장 큰 구에 속하고 있다. 이들 네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과 부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중구와 종로구는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도심부이고, 영등포구나 강남구는 도심부라고 일컬을 수 있는 부심부이다. 이들 지역에 유입인구가 집중하고 있다.

반면에 유출인구는 중구가 27,968명으로 가장 적고, 종로구(42,402명), 용산구(69,857명), 금천구(39,449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상주인구의 규모가 작은 도심부에서는 유출인구도 그다지 크지 않다.

위에서 상주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로 정의한 주간인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강남구의 주간인구가 726,1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등포구 514,332명이고, 중구 452,750명, 동대문구 437,651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강남구는 상주인구의 규모도 가장 큰 구에 속하고 있는데 주간인구는 서울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구는 상주인구는 가장 적는데 주간인구는 강남구, 영등포구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간인구와 상주인구가 구해지면 주간인구와 상주인구의 차이를 구해볼 수 있다. <표 1>의 마지막 열은 주간인구와 상주인구의 차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보여 주고 있다. 주간인구와 상주인구의 차가 가장 큰 구는 중구로 338,091명에 달하고 있다. 중구에 이어 주간인구와 상주인구의 차가 큰 구는 강남구(272,626명), 종로구(232,924명), 영등포구(172,54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최도심부와 도심부나 마찬가지로 부심부에서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5년 현재 서울시의 25개 구 가운데 11개 구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더 많다. 즉,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보다 더 많다. 반면에 14개 구는 주간에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아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더 적다.

## 2. 수도권 주간인구의 유입지와 유출지

서울의 주간인구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같은 구내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자기가 거주하는 구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서울의 바깥에서 거주하지만 서울에 들어와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고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 것일까? 다음 <표 2>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상주인구가 주간인구로서 어느 구 및 지역으로 유출되는지 5대 유출지를 통해 보여준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상주인구가 주간인구로 자기가 사는 구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5대 지역은 경기, 중구,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이다. <표 2>

〈표 2〉 서울의 구별 주간인구의 5대 유출지

구 \ 유출지	1	2	3	4	5
종로	중구	경기	강남	서대문	동대문
중구	경기	강남	종로	성동	용산
용산	중구	강남	경기	종로	영등포
성동	중구	강남	경기	동대문	광진
광진	강남	경기	성동	중구	동대문
동대문	중구	종로	경기	강남	성북
중랑	동대문	경기	중구	노원구	강남
성북	종로	중구	동대문	경기	강남
강북	성북	종로	중구	경기	도봉
도봉	경기	노원	중구	강북	성북
노원	중구	경기	동대문	강남	종로
은평	경기	중구	서대문	종로	강남
서대문	중구	종로	경기	마포	강남
마포	경기	중구	서대문	영등포	강남
양천	강서	영등포	경기	중구	강남
강서	경기	영등포	양천	중구	강남
구로	경기	영등포	강남	중구	인천
금천	경기	영등포	구로	관악	강남
영등포	경기	구로	강남	중구	동작
동작	경기	강남	서초	영등포	중구
관악	경기	강남	영등포	서초	중구
서초	강남	경기	중구	종로	서대문
강남	경기	서초	중구	종로	송파
송파	강남	경기	강동	중구	서초
강동	송파	경기	강남	성동	중구
인천	경기	영등포	구로	강남	중구
경기	강남	영등포	중구	서초	인천

자료: 통계청(1997:78, 표 8)에서 정리함.

의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서울의 상주인구들은 모든 구에서 이 5대 지역의 최소 두지역, 최대 다섯지역으로 이동하여 주간인구로 활동한다. 용산구의 상주인

구가 용산구의 경계 바깥으로 이동하여 주간인구로 활동하는 5대 지역이 모두 경기, 중구,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이다. 동대문,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관악, 서초구 등 12개 구의 상주인구는 5대 유출지 가운데 한 유출지를 제외한 4대 유출지로 가장 많이 이동하여 주간인구로 활동한다. 5대 유출지가 아닌 한 지역은 대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인 경우가 많다. 서울의 25개 구 중 도봉구의 상주인구만이 5대 유출지 중 경기, 중구에 많이 이동하고 인접 지역인 노원, 강북, 성북구 등 5대 유출지가 아닌 3개 구에 이동한다는 점이 예외적으로 보일 뿐이다.

인천의 상주인구도 경기, 영등포, 강남, 중구 등 5대 유출지 중 4대 유출지에 주간인구로 이동한다. 나머지 한 지역은 구로구인데 영등포구와 바로 붙어 있는 지역으로 구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인천의 상주인구 가운데 주간인구로 유출되는 인구는 사실상 5대 유출지역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상주인구들은 강남, 영등포, 중구의 순으로 많이 이동한다. 그 다음 지역은 서초와 인천이다. 서초구가 강남구에 붙어 있고 구의 성격이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상주인구들도 거의 모두 5대 유출지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유출지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서울의 각 구 및 인천, 경기지역에는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될까? 다음 <표 3>은 <표 2>에서처럼 서울의 각 구 및 인천, 경기지역에 주간인구로 유입되는 5대 유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25개 구 중 강북구와 양천구 등 2개 구를 제외한 23개 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중 가장 많은 주간인구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지역에서 제일 많은 수가 유입된다. 양천구의 경우 바로 붙어있는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주간인구가 유입되고 그 다음이 경기지역이다. 경기지역이 서울의 각 구에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서울에서 주간인구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 상주인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각 구,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주간인구의 유출지로 5대 유출지를 꼽을 수 있었던 반면에 동일한 방식으로 주간인구의 5대 유입지는 꼽을 수 없다. 가장 많이 유입되는 단일 지역으로 경기지역을 꼽을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주로 각 구의 인접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현상은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적은, 즉 야간인구가 주로 거주하는 성격이 강한 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구에서는 상주인구의



〈표 3〉 서울의 구별 주간인구의 5대 유입지

구	유입지	1	2	3	4	5
종로	경기	성북	은평	강북	서대문	
중구	경기	노원	성동	은평	성북	
용산	경기	동작	인천	관악	강남	
성동	경기	광진	강동	송파	동대문	
광진	경기	성동	송파	중랑	강동	
동대문	경기	중랑	노원	성북	광진	
중랑	경기	중랑	동대문	광진	성북	
성북	경기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강북	도봉	성북	경기	노원	동대문	
도봉	경기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노원	경기	도봉	중랑	성북	강북	
은평	경기	서대문	마포	강서	인천	
서대문	경기	은평	마포	강남	서초	
마포	경기	서대문	은평	강서	양천	
양천	강서	경기	구로	영등포	인천	
강서	경기	양천	인천	영등포	마포	
구로	경기	인천	관악	영등포	양천	
금천	경기	구로	관악	영등포	동작	
영등포	경기	양천	강서	인천	구로	
동작	경기	관악	영등포	서초	강남	
관악	경기	동작	금천	서초	강남	
서초	경기	강남	동작	관악	송파	
강남	경기	송파	서초	관악	강동	
송파	경기	강동	강남	광진	성동	
강동	경기	송파	광진	강남	성동	
인천	경기	구로	양천	강서	영등포	
경기	인천	송파	관악	강남	구로	

자료: 통계청(1997:78, 표 8)에서 정리함

많은 부분이 주간인구로 각 구를 빠져나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게 유입되는 주간인구는 주로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보충된다.

경기가 단일 지역으로 서울의 각 구에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기 지역에는 일산, 분당, 평촌, 산본 등과 같은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고, 안양, 과천, 부천, 광명 등 여러 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한강의 남부와 북부의 농촌지역이 포함된 매우 이질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의 각 구에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는 경기지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4>는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종로, 중구, 영등포, 강남 등 네지역에 경기지역내의 어느 시에서 주간인구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종로, 중구, 영등포, 강남구 가운데 종로와 중구에 주간인구를 공급하는 경기 지역의 분포는 의정부시와 안양시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7개 시 및 공급규모의 순서가 동일하다. 즉, 고양, 성남, 부천, 광명, 안양, 의정부, 군포시에서 종로, 중구의 두 개구에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배출하며 배출하는 주간인구 규모의 순서도 거의 같다.

종로와 중구 등 두 개 구에 유입되는 경기도의 주간인구 가운데 20%는 고양시에서 온다. 그 다음 성남시에서 약 14%가 유입된다. 이 두 지역은 각각 일산과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신도시에서 주로 많은 주간인구가 종로와 중구

<표 4> 경기도 상주인구 가운데 4대 유입지별 유입인구규모 순서

구	1	2	3	4	5	6	7
종로	고양시 (19.15)	성남시 (13.19) <sup>1)</sup>	부천시 (11.94)	광명시 (10.95)	의정부시 (7.21)	안양시 (6.97)	군포시 (3.86)
중구	고양시 (20.27)	성남시 (14.26) <sup>2)</sup>	부천시 (13.18)	광명시 (10.94)	안양시 (8.97)	의정부시 (6.19)	군포시 (3.77)
영등포	부천시 (22.67)	광명시 (17.47) <sup>3)</sup>	고양시 (12.88)	안양시 (10.09)	성남시 (7.38)	의정부시 (4.59)	수원시 (3.99)
강남	성남시 (28.14)	안양시 (10.51) <sup>4)</sup>	고양시 (9.30)	부천시 (8.94)	광명시 (8.39)	의정부시 (4.29)	군포시 (3.86)

주 : 1) 분당구 6.47%, 비 분당구 6.72%임.  
 2) 분당구 10.67%, 비 분당구 3.59%임.  
 3) 분당구 3.54%, 비 분당구 3.84%임.  
 4) 분당구 15.40%, 비 분당구 12.74%임.  
 자료: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

로 유입될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1995년 센서스의 지역구분에서 일산은 고양시에 포함되어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분당은 분당구로 성남시와 따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종로와 중구에 유입되는 성남시의 주간인구를 성남의 구 시가지와 분당 신 시가지로 나누어 보면, 종로에는 거의 같은 비율로 주간인구를 공급하지만, 중구에는 분당의 상주인구가 성남의 구 시가지의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로 더 많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등포구에는 부천시와 광명시에서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 부천시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영등포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23%, 광명시에서는 17%의 주간인구를 영등포에 공급하고 있다. 그 뒤를 일산을 포함하고 있는 고양시(13%)가 있고 있다.<sup>1)</sup>

강남구에는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 강남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 중 경기 지역의 주간인구의 거의 30% 정도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나. 성남시를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로 나누어보면 분당 신시가지에서 더 많은 주간인구를 강남구에 공급하고 있다. 성남시 다음으로는 안양시(11%)에서 강남에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고, 그 뒤를 고양시(9.3%)가 잇고 있다.

결국 경기지역에서 서울의 각 구에 가장 많은 주간인구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 성남, 부천, 광명, 안양 등의 수도권 도시지역의 상주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주간에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 IV. 서울의 계급·계층구조

이제 이 절에서 서울의 계급·계층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자. 이 절의 목표는 서울의 계급·계층구조를 엄밀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인구개념을 사용할 때 서울의 계급·계층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절의 목표다.

지금까지 계급·계층구조를 해명할 때 분석대상이 되는 인구는 언제나 상주인구였

1) <표 4>에서는 수원시가 군포시보다 더 많은 주간인구를 배출하고 있다고 보여주지만, 실제 절대 규모면에서 수원시와 군포시에서 영등포에 배출하는 주간인구의 규모는 거의 동일하다.

다. 상주인구 개념 이외의 마땅한 인구개념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활용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주인구는 일상생활에서 일터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보다 유용한 인구개념이다. 오늘날처럼 야간에 잠을 자는 곳과 주간에 일을 하는 곳이 다른, 일터와 주거지의 불일치가 심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상주인구의 개념은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경기도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주간에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행정적으로는 서울시민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민과 다름없이 하루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명히 서울시민이 아니지만 심정적으로는 자신들을 서울시민이나 다름없이 인식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계급·계층구조를 분석할 때 이들은 언제나 빠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울의 계급·계층구조의 분석은 항상 서울의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상주인구를 계급·계층구조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 주민등록상으로는 서울의 시민이면서도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서울 바깥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분석에 포함되지만, 서울 외곽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생활은 서울에서 영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계급·계층구조의 분석에서 늘 빠지게 된다.

계급·계층구조를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불평등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싶은데서 출발한다. 서울의 계급·계층구조를 분석하는 이유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서울의 계급·계층구조를 구별로 분석하는 이유는 각 구별로 불평등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결과로서 서울시 안에서 거주지 분리가 계급·계층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해명하고 싶기 때문이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싶지만 서울에서 거주할 수 없어서 서울 바깥으로 거주지역을 옮긴 사람들을 서울에서 계급·계층별로 이루어지는 거주지 분리의 차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서울의 계급·계층구조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한, 이들은 언제나 분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후자의 관점에서라도 상주인구 뿐만 아니라 주간인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의 계급·계층구조 분석이 필요하며, 두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sup>2)</sup>

서울의 계급·계층구조의 변화는 <부표 2>에 나와 있다.<sup>3)</sup>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상주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서울 구별 계급·계층구조는 다음 <표 5>와 같다.<sup>4)</sup>

〈표 5〉에서는 서울의 구를 〈표 1〉의 주간인구 순으로 배열했다. 이는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한 계급·계층구조가 주간인구의 많고 적음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표 5〉에서 서울의 구를 주간인구의 순으로 배열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은 지역은 과거부터 존재해 온, 서울의 전통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최소 1975년부터만 고려해도 서초구와 구로구를 제외하고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은 구는 모두 1975년부터 독립된 구로 존재해왔다.

이에 반해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적은 지역은 독립된 구로서의 역사가 짧은 지역이 많다. 물론 주간인구가 적은 구의 일부는 주간인구가 큰 구에서 분할, 독립하였지만, 그렇게 독립된 구일수록 상주인구의 성격이 강한 구임을 알 수 있다.

〈표 5〉를 보면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은 구 내에서도 구별로 계급·계층구조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구나 동대문, 성동, 구로구 등의 상주인구의 계급·계층적 지위는 강남구나 서초구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중상, 신중간, 근로계급별로 나누어보면 강남구나 서초구 등은 중상, 신중간 계급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중구, 동대문, 구로, 성동구 등은 중상계급의 비율은 낮고 상대적으로 근로계급의 비율이 높다.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적은 구에서도 계급·계층구조의 차이가 나타난다. 송파, 노원구 등은 비교적 높은 계급·계층구조를 보이는데 반하여 성북, 관악, 중랑, 강북구 등은 비교적 낮은 계급·계층구조를 보여준다.

상주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급·계층구조를 분석하면 서울의 옛 4대문 안 지역은 모두 계급적, 계층적 지위가 낮은 이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계급·계층구조화의 결과인 거주지 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 서울의 옛 4대문 안이면서 도심부지역은 주거지로서는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교

- 2) 1995년까지 한국사회의 계급·계층구조 분석은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를 참조할 수 있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의 계급·계층구조 분석은 은기수(2000b)에 자세히 나와 있다.
- 3) 서울의 계급·계층구조의 변화 양상은 한국사회의 계급·계층구조의 변화 양상과 궤를 같이 하지만 일찍부터 노동계급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 4) 〈표 5〉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은기수(2000b)를 참고하기 바란다. 보통 계층분석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계층구조분석틀에서도 직업과 종사상의지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여성들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 포함되는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표 5〉 서울의 구별 상주인구의 계급구조 변화, 1975-1995: 남성

(단위: %)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근로계급			
	1975	1980	1990	1995	1975	1980	1990	1995	1975	1980	1990	1995
중구	4.54	3.86	2.16	3.03	19.78	15.06	19.07	18.71	29.22	22.96	31.21	29.57
강남	3.53	13.37	10.32	15.05	16.91	35.56	46.43	45.85	27.35	11.93	9.17	8.79
종로구	6.46	5.18	3.61	7.5	21.57	20.5	27.26	24.72	28.03	23.35	22.29	26.95
영등포	3.16	4.79	3.94	6.34	19.62	20.28	28.7	31.42	40.3	30.01	31.84	27.35
동대문	3.79	3.77	2.08	3.65	25.31	19.75	24.56	24.86	28.48	26.45	28.36	28.6
서초			10.99	13.38			39.67	44.25			11.34	10.72
용산	5.8	6.02	4.7	6.15	24.54	22.8	26.93	27.21	31.79	23.58	23.33	24.68
성동	4.69	4.03	3.05	2.38	19.48	17.8	26.14	25.71	35.06	30.17	33.22	32.49
서대문	4.4	5.19	3.89	6.32	25.66	24.22	29.83	31.92	30.19	23.41	25.67	25.33
구로		4.28	2.67	3.99		20.18	28.84	29.57		37.39	38.75	32.29
마포	3.43	4.21	4.76	8.03	22.46	21.16	31.6	31.35	32.63	25.37	26.4	24.95
성북	4.37	4.18	2.77	4.22	25.26	19.95	25.32	24.17	28.74	25.63	29.2	32.22
강서		3.33	2.91	4.55		26.07	37.26	34.03		27.5	27.41	27.39
금천				3.44				25.48				37.04
도봉	2.7	3.84	3.39	5.72	20.07	22.93	28.76	36.29	39.65	27.12	29.13	23.27
송파			6.17	9.4			38.05	36.65			17.75	17.86
강동		3.86	3.68	5.46		25.12	35.75	35.92		24.75	23.63	22.89
광진				5.76				31.08				25.48
동작		2.92	4.04	6.85		23.98	35.08	37.2		25.28	23.48	22.98
중랑			2.06	2.6			23.28	23.79			35.59	32.05
은평		7.18	4.3	5.14		30.54	32.25	37.06		18.59	24.42	22.64
관악	3.84	3.27	2.56	4.4	16.3	25.32	32.38	33.16	30.91	23.64	30.23	27.53
양천			3.99	5.98			33.39	34.36			27.8	23.79
노원			4.28	8.08			40.73	36.14			21.97	20.45
강북				4.5				24.26				31.62

주: 계급분류는 홍두승교수의 분류들을 따름. 홍두승·김병관·조동기(1999) 참조.

자료: 1975년 인구센서스 1% 표본자료; 1980, 1990,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 은기수 (2000b)에서 재정리.

육시설이 강남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고, 교통, 환경, 안전 등 여러 면에서 주거지로  
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상주인구의 계급·계층적

지위가 강남구나 서초구의 상주인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서 상주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상주인구의 수에 따라 교부금의 규모라든지, 공무원의 인원, 직급 등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주인구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유통, 금융, 문화 등에 종사하는 주간인구는 우선 수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큼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는 상주인구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다. 따라서 각 구의 입장에서도 주간인구는 상주인구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표 6>은 1995년만을 대상으로 서울의 구별 상주인구 및 주간인구의 계층구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표 6>을 보면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구별 계급·계층구조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은 구를 보면 일단 강남구와 서초구가 다른 구들과 계급·계층구조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다른 구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자신들의 상주인구보다 계급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간인구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주인구로는 서울의 어느 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계급적 지위가 높지만 주간인구로 계급·계층구조를 살펴보면 계급적 지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주인구에 비해 주간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상주인구의 계급적 지위가 낮은, 주로 전통적인 옛 도심지역은 계급적 지위가 높은 주간인구가 유입되어 활동하지만, 상주인구의 계급적 지위가 높은 강남, 서초구 등은 상주인구에 비해 계급적 지위가 낮은 주간인구가 유입되어 활동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적은 지역은 위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계급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주간인구로 자신의 구를 빠져나가 주간인구의 계급적 지위가 매우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와 노원구의 경우 <표 5>에서 보면 계급적 지위가 높은 구임을 알 수 있는데 <표 6>에서 보면 주간인구가 적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주간인구의 계급적 지위가 매우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다. 송파구나 노원구에 비해 상주인구의 계급적 지위가 훨씬 낮았던 다른 구에서도 그나마 높은 계급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주간인구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구에서 활동하지 않고

〈표 6〉 서울의 구별 상주 및 주간인구의 계급구조, 1995: 남성

구	인구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근로계급		하류계급	
		상주	주간	상주	주간	상주	주간	상주	주간	상주	주간
중구	3.03	6.33	18.71	43.66	37.00	25.19	29.57	20.26	11.42	4.52	
강남구	15.05	9.28	45.85	50.56	25.35	17.30	8.79	17.27	4.07	5.20	
종로구	7.50	8.49	24.72	42.27	31.81	23.49	26.95	20.60	8.92	5.09	
영등포구	6.34	8.42	31.42	40.51	27.14	21.71	27.35	23.59	7.58	5.76	
동대문구	3.65	4.20	24.86	24.01	31.45	35.84	28.60	27.60	11.27	8.26	
서초구	13.38	9.59	44.25	45.54	27.75	21.50	10.72	18.28	3.44	4.68	
용산구	6.15	8.73	27.21	34.72	31.78	23.49	24.68	25.61	9.94	7.41	
성동구	2.38	3.76	25.71	28.12	29.59	26.26	32.49	33.60	9.62	8.18	
서대문구	6.32	7.98	31.92	33.56	28.57	28.15	25.33	22.68	7.64	7.46	
구로구	3.99	3.33	29.57	30.83	24.67	23.47	32.29	34.66	9.18	7.63	
마포구	8.03	7.62	31.35	37.40	26.59	23.18	24.95	23.41	8.85	8.21	
성북구	4.22	5.86	24.17	22.70	30.26	32.73	32.22	29.18	8.90	9.35	
강서구	4.55	2.91	34.03	34.48	26.52	25.13	27.39	28.89	6.84	8.08	
금천구	3.44	3.14	25.48	22.53	23.67	28.62	37.04	36.84	10.24	8.86	
도봉구	5.72	2.32	36.29	23.07	27.47	31.50	23.27	33.90	6.93	9.21	
송파구	9.40	5.87	36.65	31.40	30.60	32.10	17.86	23.41	5.26	7.04	
강동구	5.46	3.79	35.92	27.30	27.64	32.28	22.89	26.23	7.34	9.44	
광진구	5.76	3.92	31.08	26.21	30.33	34.51	25.48	26.67	7.06	8.53	
동작구	6.85	6.24	37.20	31.12	25.41	30.40	22.98	22.08	7.37	10.00	
중랑구	2.60	1.81	23.79	18.47	31.97	37.37	32.05	31.25	9.25	10.85	
은평구	5.14	3.27	37.06	25.65	28.57	35.78	22.64	26.12	5.97	8.37	
관악구	4.40	4.91	33.16	24.44	24.36	33.93	27.53	25.50	10.27	11.05	
양천구	5.98	3.35	34.36	25.52	29.20	35.04	23.79	26.12	6.59	9.82	
노원구	8.08	4.50	36.14	24.30	26.73	33.49	20.45	25.17	8.15	12.35	
강북구	4.50	3.22	24.26	19.30	29.84	39.45	31.62	26.11	9.19	11.83	
경기도*		8.87		32.96		20.47		30.92		5.52	

주: 1) 독립자영농계급과 농촌계급은 제시하지 않음.

2) 계급분류는 홍두승교수의 분류틀을 따름. 홍두승·김병관·조동기(1999) 참조.

3) \* 경기도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 및 경기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계급구성임.

4) 음영부분은 상주인구의 비율과 주간인구의 비율을 비교하여 주간인구의 비율이 높은 부분을 나타냄.

자료: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



다른 구로 빠져나가 활동함에 따라 자신들이 거주하는 구의 계급적인 지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구별 계급·계층구조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주간인구의 계급적 특성에 따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7>을 보자.

<표 7> 서울의 상주인구 가운데 주간이동지별 계급구성, 1995: 남성

주간이동지	중상	신중간	구중간	근로	하류	기타	합
종로구	9.04	46.69	21.39	18.85	3.99	0.04	100.0
중구	6.84	45.51	24.46	19.95	3.22	0.03	100.01
영등포구	10.66	44.89	17.83	22.39	4.23	0.00	100.0
강남구	8.24	52.90	13.90	19.13	5.72	0.10	99.99
경기	8.23	32.49	20.88	31.44	5.65	1.31	100.0

자료: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

<표 7>에서 알수있듯이 서울에 살면서 주간에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강남구로 이동해 활동하는 주간인구의 계급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높다. 네 개 지역 가운데 영등포구에 들어가 활동하는 주간인구 가운데 중상계급의 비율이 높은 순서는 영등포구, 종로구, 강남구, 중구의 순이다. 중구는 상주인구의 계급·계층구성에서도 중상계급의 비율이 제일 낮았는데 중구외의 서울에 살면서 중구에서 활동하는 주간인구들 가운데서도 중상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다.

신중간계급은 강남구에 들어가는 주간인구에 가장 많으며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는 45~47%로 거의 동일하다. 반면에 구중간계급은 강남구에 들어가는 주간인구에 가장 적고, 중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근로계급은 비율이 가장 낮은 강남구부터 가장 높은 영등포구까지 3% 정도의 차이밖에 없을 정도로 구별로 별 차이가 없다.

<표 7>에 나타난 결과는 서울의 상주인구 가운데 구의 경계를 넘어 중구, 종로구, 강남구, 영등포구에 유입되어 활동하는 주간인구의 계급구성이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주간인구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의 상주인구이면서 주간에는 서울 중심부에서 활동하는 주간인구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표 8>을 보자.

〈표 8〉 경기도의 상주인구 가운데 주간이동지별 계급구성, 1995: 남성

주간이동지	중상	신중간	구중간	근로	하류	기타	합
종로구	8.08	47.14	18.03	22.64	4.10	0.00	99.99
중구	6.64	51.12	18.83	19.19	4.22	0.00	100.0
영등포구	7.45	47.44	16.57	24.62	3.84	0.08	100.0
강남구	9.84	53.20	13.83	19.57	3.44	0.12	100.0

자료: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

우리는 〈표 8〉에서도 경기 지역에 상주인구로 있지만 주간에 서울의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주간인구의 계급구성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경기도에서 강남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계급적 지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중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계급적 지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 영등포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계급적 지위가 가장 낮은 편이다.

〈표 7〉과 〈표 8〉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은 서울의 도심부에서 주간인구의 계급적 지위는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서울의 옛도심부 혹은 현재의 도심부는 상주인구만으로 계급구조를 살펴보면 계급적 지위가 매우 낮은, 쇠락한 지역으로 인식되지만, 주간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서울에서 가장 계급적 지위가 높은 지역으로 뒤바뀐다는 것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주인구 자체가 현재 서울의 어느 구의 상주인구보다 계급적 지위가 높은 반면에 주간에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계급적 지위가 상주인구의 계급적 지위보다 낮기 때문에 주간인구 만으로는 상주인구만으로 계급구조를 파악할 때보다 계급지위의 하락을 겪는다.

##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상주인구의 측면에서 서울의 구 도심부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현재 상주인구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지역은 상주인구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간인구의 측면에서 보면 도심지는 유출인구가 많지 않은 반면, 주간인구의 규모는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의 모든 구에서 경기지역, 특히 일산, 분당, 인천, 의정부 등의 지역에서 주간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계층의 측면에서 서울의 도심부 지역의 상주인구 가운데는 근로계급 및 하층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상주인구만으로 보면 도심부 지역은 계속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주간인구의 계층구조를 분석해보면 서울의 도심부 지역은 계층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규모를 보면 서울의 구 도심부나 신 도심부 모두 고양, 성남 등의 순으로 주간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주간에 유입되는 인구의 계층구조는 서울의 어느 지역이나 큰 차이없이 비슷하게 비교적 높은 계층에 속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상주인구가 일상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주간인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또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급구조가 주간인구의 규모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주간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도심부와 부도심부에 서울의 다른 구 및 경기 지역에서 유입되는 주간인구의 계급적 지위가 비교적 높으면서 동질적임을 알 수 있었다.

현대사회는 일터와 거주지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상주인구 개념 못지않게 주간인구의 개념이 학문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불평등현상을 밝히기 위해 계급·계층구조를 분석할 때도 상주인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인구를 대상으로 한 계급·계층구조의 분석도 필요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서울의 구별 계급·계층구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주인구 뿐만 아니라 주간인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 권태환·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 은기수 (2000a), "도심부의 인구문제," 김창석 외, 《도시중심부연구》, 보성각.
- (2000b), "20세기 서울의 계층구조" 《향토사학》 6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홍두승·김병조·조동기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출판부.
- 통계청 (1997),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 현황," 제3회 통계의날 기념 심포지움 자료, 통계청.
- 통계청 (1975, 1980, 1985, 1990, 1995),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부표 1〉 서울의 구별 상주인구에 대한 유입, 유출인구 비, 1995.

(단위: 명, %)

구	유입+유출	유입/상주	유출/상주	유입·유출/상주
중구	394,027	319.3	24.4	343.7
종로	317,728	170.0	26.2	196.1
강남	558,378	91.6	31.5	123.1
영등포	396,819	83.3	32.8	116.1
용산	213,569	67.2	32.7	99.9
서초	321,772	61.8	36.6	98.3
동대문	310,261	57.4	31.7	89.1
성동	239,644	51.1	36.0	87.1
구로	246,719	47.0	36.0	83.0
서대문	246,391	47.1	35.3	82.4
마포	230,140	36.7	34.4	71.1
동작	228,467	23.1	42.1	65.2
성북	263,939	30.0	34.2	64.2
도봉	175,003	22.2	39.6	61.8
송파	303,226	24.2	34.2	58.4
강서	230,157	23.5	33.6	57.2
관악	252,001	18.2	37.0	55.2
노원	249,179	17.7	37.4	55.0
금천	124,692	17.1	36.9	54.0
양천	194,827	14.2	37.9	52.1
광진	160,858	15.7	35.9	51.5
중랑	177,396	14.0	36.0	50.0
강북	161,265	9.2	40.6	49.7
강동	193,813	16.7	32.5	49.1
은평	190,305	13.2	34.6	47.8

자료: 통계청(1997:91)에서 작성.

〈부표 2〉 서울의 계급구성의 변화, 1975-1995 (남성)

계급구분	1975	1980	1990	1995
중상	4.0	4.7	4.1	6.2
신중간	22.6	22.8	31.6	32.4
구중간	22.0	27.0	26.8	28.2
근로	32.9	25.8	26.8	25.1
하류	16.7	18.9	10.2	7.8
독립자영농	1.3	0.7	0.4	0.2
농촌하류	0.5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각 해당연도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

〈부표 3〉 한국표준직업분류(1974년도 개정)에 의한 계급분류

대분류	중분류	비용/자영	자영업주 구분 및 기타	계 급
0/1.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 사자	고위 전문직	비용/자영		II. 중상
	(하위)전문, 기술직	비용		III. 신중간
		자영	자영 전문직	IV. 구중간
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정부행정직	비용		II. 중상
	관리직	비용		II. 중상
		자영	자영 관리직	IV. 구중간
3.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사무원 감독자	비용		III. 신중간
	정부행정 공무원	비용		III. 신중간
	일반 사무직	비용		III. 신중간
4. 판매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비용		III. 신중간
		자영	자영 상인	IV. 구중간
	하위판매종사자	자영	행상 등	VI. 도시하류
5. 서비스직 종사 자	요식숙박업종사자	비용		V. 근로
		자영	자영서비스직	IV. 구중간
	보안업무 종사자	비용		III. 신중간
	가정부, 가사종사자	비용		VI. 도시하류
	건물관리원, 청소원	비용		VI. 도시하류
	기타 서비스직	비용		V. 근로
6. 농림어업직 종 사자		자영	5단보 이상	VII. 자영농
		자영	5단보 미만	VIII. 농촌하류
		비용		VIII. 농촌하류
7/8/9 생산 및 관 련 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생산감독	비용		V. 근로
	생산관련 종사자	비용		V. 근로
		자영	자영기능인	IV. 구중간
	운수장비 종사자	비용		V. 근로
단순노무자	자영	자영기능인	IV. 구중간	
실업자	실업자		고졸 미만	VI. 도시하류
			고졸 이상	분류제외

자료: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 137-138, 표 6.8).

〈부표 4〉 한국표준직업분류(1992년도 개정)에 의한 계급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용/자영	자영업주구분	계급
1. 입법자,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11		비용		II. 중상
	12,13	121	비용/자영		II. 중상
		122,123,131	비용		III. 신중간
			자영		IV. 구중간
2. 전문가	21,22	211-214,221,222	비용/자영		II. 중상
		223	비용		III. 신중간
	23	231	비용		II. 중상
		232-235	비용/자영		III. 신중간
	24	241,242,244,245	비용/자영		II. 중상
		243,246	비용/자영		III. 신중간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1,32		비용		III. 신중간
	33,34		자영	자영 전문직	IV. 구중간
4. 사무직원	41,42		비용		III. 신중간
			자영	자영 사무직	IV. 구중간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51	511-515	비용		V. 근로
			자영	자영서비스직	IV. 구중간
		516	비용		III. 신중간
			자영	자영서비스직	IV. 구중간
	52	521	비용/자영		III. 신중간
		522,523	비용		V. 근로
		자영	자영 상인	IV. 구중간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61,62		비용		VIII. 농촌하류
			자영		VII. 독립자영농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1-74		비용		V. 근로
			자영	자영 기능인	IV. 구중간
8. 장치, 기계조작 원 및 조립원	81-83		비용		V. 근로
			자영	자영 기능인	IV. 구중간
9. 단순노무직 근로자	91,93	911-916,931-933	비용/자영		VI. 하류
	92	921	비용/자영		VIII. 농촌하류
0. 군인	01				분류제외
실업자	실업자	고졸 미만			VI. 하류
		고졸 이상			분류제외

자료: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 139-140, 표 6.9).



## Social Stratification of the Great Seoul Area: A Comparative Study Using Two Types of Population

Ki-Soo Eun

This study aims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Great Seoul area using two types of population. One type of population is a resident population(常住人口), and the other is a daytime population(晝間人口). In most demographic studies, only resident population have been considered. There has been less attention to daytime population. However, a resident population have a character of night population(夜間人口). In fact, most people move and work in the areas where they do not live in everyday life in the contemporary period, which indicates that the concept of a daytime population is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a resident population.

This study reveals that a number of people, on the one hand, come together to the downtown area to work or study while they live in other areas. On the other hand, resident population in downtown area do not move so much. When we analyze the social stratification structure of the Great Seoul area using a resident population, we find that the resident population of downtown area consist of those of low social status. On the contrary, the daytime population of downtown area in Seoul consist of those of high social status. This means that most people of high social status live in the southern area of Seoul or outside Seoul, but make a living in downtown area in everyday life.

From this study, we find that the concept of a daytime population is as important as that of a resident population. The more residence becomes separate from work place, the more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a daytime population grows in making policy as well as in demographic studies. This study implies that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concept of daytime population in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studies.

**Key Words** : resident population, daytime population, social stratification, downtown, Seoul, Great Seoul area.